

봄이 시작 되는 곳 해남

겨우내 기를 못 편 동장군이 뒤늦게 심술을 부린 입춘,
땅끝마을로 향했다. 북쪽에서 불어온 차디찬 바람이 남쪽
땅끝에도 미쳤지만, 봄이 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양갈진 바람
속에 꽃봉오리를 터뜨린 매화나무 아래서, 새순을 준비하는
푸르른 녹차 밭 한가운데서 움트는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글 김희선 · 사진 전수영 기자

立 春

海 — 南



“서울에는 함박눈이 내린 입춘,
땅끝에서는 봄이 오고 있었다. 햇살 아래 꽃망울을 터뜨린
수선화와 진달래가 고운 빛깔을 뽐내며 봄을 재촉한다.”

美 世 眞 寺

달마산이 품은 천년고찰 미황사

소백산맥이 땅끝을 향해 뻗어 내려가다 남해에 이르기 전 솟은 바위산이 달마산이다. 기묘한 바위 능선이 다도해를 향해 길게 펼쳐져 있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이 산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천년고찰 미황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절의 모습에 감탄한 방문객들은 산을 등지고 돌아서면 펼쳐지는 다도해의 풍경에 또 한 번 탄성을 지르게 된다.



◆◆◆
천년의 세월,
萬佛 기암괴석과
하나 되다

땅끝은 역시 땅끝이었다. 서울에서 오전 9시 30분 SRT를 타고 목포까지 이동한 뒤 렌터카로 해남에 다다른 것은 오후 2시 30분. 먼저 달마산 중턱의 미항사로 향했다. 7박 8일간 진행되는 참선 집중 수행 템플스테이에 며칠만이라도 동참해 보고 싶어서였다. 때이닝 한파가 몰아닥친 입춘이었지만, 꽃봉오리를 터뜨린 매화나무를 보니 '어김없이 봄은 오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주문과 사천왕문, 자하루를 지나 계단을 오르니 보물 947호 대웅보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대웅전은 말 그대로 고색창연한 기품이 넘쳐흘렀다. 창건 당시 화려한 색을 뽐냈을 단청은 오랜 세월 해풍에 씻겨 말간 나무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냈다. 1천년 넘게 풍파를 견디며, 수많은 불상처럼 우뚝 솟아 있는 기암괴석의 빛깔과 하나가 된 듯하다. 오랜 수행을 거쳐 해탈의 경지에 이른 노승의 모습 같기도 했다. 미항사는 1천270년의 역사를 지닌 사찰이다. 대웅전에서 7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부도암 앞의 사적비에는 미항사 창건에 얽힌 이야기가 적혀 있다. 신라 경덕

왕 때인 749년, 우전국(인도)에서 경전과 불상을 싣고 온 배가 달마산 아래 포구에 닿았다. 의조화상이 동네 사람들과 포구로 나가자 금인(金人)이 탄 배 안에서 검은 돌이 갈라지며 검은 소 한 마리가 나왔다. 부처를 모실 곳을 찾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는 금인은 의조화상의 꿈에 나타나 "달마산 꼭대기를 바라보니 일만 부처가 나타나므로 여기에 부처님을 모시려 한다"라면서 "소에 경전과 불상을 싣고 가다 소가 누웠다가 일어나지 않거든 그 자리에 모시도록 하시오"라고 했다. 의조화상은 금인의 말에 따라 소가 처음 울며 누웠던 자리에 통교사를 짓고, 다시 울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자

1 달마산의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미항사 대웅보전
2 절집 앞의 매화나무가 하얀 꽃을 틔우기 시작했다.





1 응진당 내부의 수묵화 기법으로 그려진 벽화
2 자하루 한쪽 벽면을 빼곡히 채운 1천개의 돌부처. 바닷가에서 굴러다니는 돌에 불상을 그려 넣었다.
3 게가 새겨진 대웅보전 주춧돌
4 대웅보전 대들보를 장식한 불상 그림. 불상이 모두 1천개여서 천불도라고도 한다.

리에 미황사를 지었다. 미황사의 미(美)는 소의 울음소리가 하도 아름다워서 따온 것이고, 황(黃)은 금인의 황홀한 색에서 따온 것이다.

미황사 대웅전 주춧돌에는 게, 거북이, 문어 등 바다생물들이 새겨져 있다. 대웅전이 창건 설화에 등장하는 배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웅전 내부 천장에는 범어(산스크리트어)가 새겨져 있고, 대들보는 불상을 그린 벽화로 장식되어 있다. 지금은 보존처리를 위해 벽화를 많이 떼어낸 상태인데, 원래 곳곳에 그려진 불상이 모두 1천개라고 한다. 이곳에서 세 번만 절을 올리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1천분의 부처님 덕분에 세 번만 절해도 삼천배를 한 셈이 된다고 한다.

법당 가운데 삼존불 뒤에는 미황사의 또 다른 보물인 괘불(보물 1342호)이 보관되어 있다. 폭 5m, 길이 12m에 달하는 거대한 탱화



로, 야외법회나 기우제 등 의례가 있을 때 법당 앞 괘불대에 내걸었다. 1992년에도 괘불을 걸고 기우제를 지냈는데 제를 지내고 서너 시간이 지나자 달마산으로 먹구름이 몰려와 폭우가 쏟아졌다고 한다. 지금은 매년 10월 괘불을 대웅전 앞마당에 걸고 괘불재를 지낸다. 땅끝마을 주민들에게는 괘불에 한 번 참배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세 번 참배하면 극락세계로 태어난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대웅전 앞 누각 자하루에도 '천불'이 있다. 건물 내부의 한쪽 벽면

에 모양이 제각기 다른 돌 1천개가 빼곡히 걸려 있는데, 다가가 자세히 보면 돌 하나하나에 부처님이 그려져 있다. 조병연 화가의 작품 '천불'이다. 영암에 사는 화가는 바닷가에서 주운 갖가지 모양의 돌에 부처님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돌부처가 1천300개가 됐다고 한다. 그중 1천개를 골라 자하루 바닥에 펼쳐놓고 전시했는데 방문객들의 반응이 좋아 아예 한쪽 벽면에 상설전시하고 있다. 돌 모양이 제각각이듯 부처의 표정도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다.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하다.





1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나무 2 응진당 3 명부전 내부의 10대 시왕상. 조선 후기 문인화가였던 공재 윤두서의 작품이다. 4 절집 기와 너머로 파란 하늘이 눈부시다. 5 오랜 세월 해풍에 벗겨져 나무 속살을 드러낸 단청

대웅전에서 석축을 따라 올라가면 응진당(보물 1183호)이 외벽 담을 두르고 있다. 석가모니의 제자 중 아라한과(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사람)를 얻은 이들을 모신 전각이다. 내부 벽면에는 채색 없이 묵으로만 표현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사찰 벽화로는 드물게 수묵화 기법으로 그려진 이 벽화는 미술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고 한다.

해 질 녘 응진당 마당으로 나와 아래를 내려다보니 또 한 폭의 수묵화가 펼쳐졌다. 절집 기와지붕 너머로 보이는 바다 위에 섬들의 고운 능선이 겹겹이 굽이친다. 뉘엿뉘엿 지는 해가 하늘과 섬, 바다, 그리고 절집을 아련한 붉은 빛으로 물들인다. 낙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으니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섬으로, 바다로, 바위 봉우리로 번져가는 마지막 햇살의 은은한 빛깔이 범종 소리와 함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한반도 최남단에 자리 잡은 미황사는 '땅끝의 아름다운 절'로 명성이 높지만 30년 전까지만 해도 폐사나 다름없이 방치된 퇴락한 '옛절'이었다고 한다.

미황사 주지인 금강 스님은 "고려 시대에는 12개의 암자를 거느린 대형 사찰이었고, 조선 중후기까지만 해도 스님 400여명이 있던 큰 절이었지만, 120년 전쯤 사찰 재건을 위해 스님들이 배를 타고 완도와 청산도로 시주 길에 나섰다가 풍랑을 만나 침몰하면서 급격하게 쇠락했다"고 말했다.

1989년 스님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전통적인 사찰 건축 양식을 가진 건물은 두 동뿐이었다고 한다. 당시 3년간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지계를 지고 돌을 나르며 절을 가꿨던 스님은 2000년 주지로 부임했고, 20채 넘는 중창 불사를 통해 쇠락한 절을 아름다운 절로 탈바꿈시켰다.

해풍에 씻겨 속살을 드러낸 대웅보전의 단청 역시 부침을 겪었던 미황사의 세월이 그대로 담긴 것이다. 스님은 "정유재란 때 불타 재건된 대웅전이 1824년 마지막 단청을 한 이후 미황사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면서 "스님들이 머물 집도 부족한 상태에서 단청까지 할 형편이 안 돼 지금에 이르렀는데 덕분에 고색창연함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5



미황사는 낙조가 아름다운 절로도 유명하다.
매월당 김시습이 일출은 낙산사, 일몰은 미황사를 제일로
꼽았다는 말도 전해진다.



山寺

◆◆◆
산사에서의
하룻밤

산사의 밤은 일찍 찾아온다. 범종 소리와 함께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이내 하늘에 별이 쏟아졌다. 한밤중 마주한 미황사는 낮에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감흥을 줬다. 병풍처럼 미황사를 감싸고 있던 달마산이 어둠 속에 가려지자 대웅전은 홀로 천년의 세월

을 내뿜는 듯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처마 끝 풍경 소리가 이따금 들려올 뿐 사방이 고요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탓인지 이른 새벽 목탁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췌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가 파도

소리 같았다. 하늘에는 밤보다 더 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새벽 4시 반이 되자 청아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절집의 하루는 목탁을 두드리며 도량을 한 바퀴 도는 도량석으로 시작한다. 잠들어 있는 세상 만물을 깨우는 의식이다. 수행복으로 갈아입고 새벽 예

불에 참여하기 위해 대웅전으로 향했다. 불자가 아닌지라 때맞춰 큰절을 올리기도 쉽지 않았지만, 목탁 소리와 염불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았다.

“산사의 하루는 새벽 예불과 함께 시작된다.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에 어둠이 걷히면서
정신도 맑아진다.”



예불이 끝난 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세심당에 모였다. 좌선 시간이다. 짹, 짹, 짹. 참선 시작을 알리는 죽비소리가 세 번 울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반가부좌를 들고 앉아 허리를 곧게 세웠다. 좌선할 때에는 졸음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눈은 감지 말되 부릅떠서도 안 된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1m 정도 앞쪽에 두되 한 곳을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뿔으면서 호흡에 맞춰 1에서 10까지 센 뒤 10에서 1까지 다시 센다.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은 모두 떨쳐버린다. 중간에 잡념이 들면 1부터 다시 세야 한다.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는 '수식관'은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혀 의식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참선 수행의 첫 단계다. 전날 배운 대로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이어나갔지만, 온갖 잡념이 불쑥불쑥 끼어들어 1에서 10까지 세기조차 쉽지 않았다. 좌선을 마치고 나오니 캄캄했던 사방이 푸른 새벽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7박 8일의 집중 수행 템플스테이의 일과는 새벽 예불로 시작해 좌선과 율력, 차담, 법문 등으로 이어진다. 참가자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1대 1 면담을 비롯해 이 모든 프로

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주지 금강 스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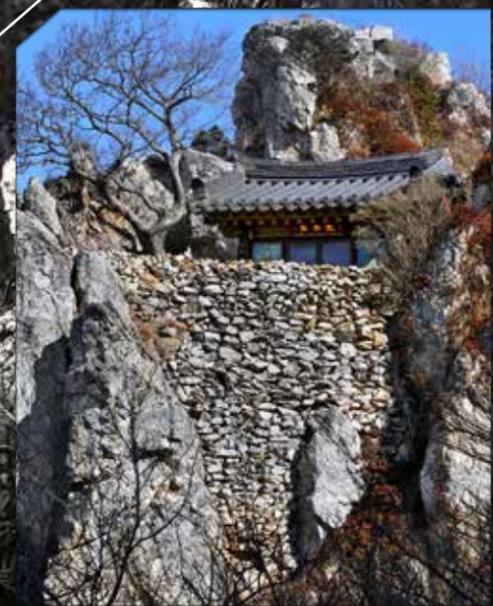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템플스테이를 위해 미항사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풍광 덕분이기도 하지만,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스님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다.

“잠깐 왔다 가는 것만으로 충분한 위안이 되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공간이 한 곳쯤은 맑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님의 말씀처럼 잠깐이었지만 큰 감흥과 위안을 얻은 하루 밤이었다.



1 어둠이 내려앉은 산사의 풍경 2 새벽 예불에 참여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3 좌선하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벼랑 끝 신비스러운 암자 도솔암

미항사를 방문했다면 도솔암도 빼놓지 말고 둘러보자. 달마산에서도 가장 가파른 바위들이 최고의 절경을 선사한다는 도솔봉에 자리 잡은 조그만 암자다. 미항사를 창건한 의조화상이 도를 닦으며 낙조를 즐겼던 곳이라고 한다. 벼랑 끝 바위 사이에 절묘하게 자리 잡은 암자는 산 밑에 펼쳐진 다도해와 함께 신비로운 풍광을 선사한다. 구름이라도 끼인 날이면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듯 선경의 세계 와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미항사에서 달마고도를 따라 1시간 30분가량 걸으면 도솔암에 도달할 수 있다. 왕복 3시간의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도솔암 직전 능선까지 난 도로를 타고 차로 이동한 뒤 800m가량 걸으면 된다. 길은 험준하지만, 발길마다 펼쳐지는 절경이 이를 보상하고도 남는다.

兜率庵

향기로운 매화 푸르른 차밭
다원에서의 하룻밤

대흥사가 있는 해남 두륜산 반대편 자락의 설아다원은 일 년 내내 초록빛으로 가득한 곳이다. 향기로운 꽃내음과 녹음이 어우러진 차밭의 한옥에서 하룻밤 머물며 다도를 배우고 판소리 가락을 즐길 수 있다.

茶

◆◆◆ 차 문화의 성지 해남

두륜산 자락 대흥사에서 약 1km가량 산길을 올라가면 초가집이 나온다. 조선 최고의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선사가 40년간 기거했던 일지암이다. 초의선사는 이곳에서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다서(茶書)의 고전인 동다송과 다신전을 저술했다. 해남, 그리고 일지암이 '차 문화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다.

두륜산 반대편 자락의 설아다원은 차 문화 성지의 명맥을 조용히 잇고 있는 곳이다. 다원의 주인장은 해남 토박이인 오근선, 마승미 부부. 원래 벼농사를 했던 부부는 일지암에 기거했던 여연 스님과 교류하면서 차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스님과 함께

다회를 만들어 차를 공부하다가 1997년에는 아예 작목을 바꿔 두륜산 남쪽 자락 땅에 차를 심었다.

한옥으로 된 카페 건물 뒷문을 열고 나가니 입구에서 보이지 않았던 푸르른 차밭이 펼쳐졌다. 부부가 23년째 가꾸온 차밭은 1만여



1



2

1 초의선사가 기거했던 일지암의 초당과 살림채 자우홍련사
2 차밭 한가운데 매화나무 한그루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다.

평에 달한다. 병풍처럼 차밭을 둘러싼 두륜산이 매서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남쪽에서 따뜻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차 가꾸기에 좋다고 한다.

차밭 한가운데에는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에서 봤던 커다란 녹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조금 더 걸어가니 매화 한 그루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다. 이곳의 특징은 다양한 나무가 차밭 곳곳에 심겨 있다는 것이다.

부부는 차밭을 가꾸기 전부터 있었던 대나무와 소나무에 녹나무, 삼나무, 배롱나무, 목련, 매화, 동백, 은행, 단풍 등 다양한 나무를 매년 심어왔다고 한다. 덕분에 철마다 아름다운 꽃이 차밭을 장식한다. 오근선 씨는 "차나무는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고 번식하는 음수(陰樹)"라면서 "나무로 그늘을 만들어줘야 부드럽고 맛있는 차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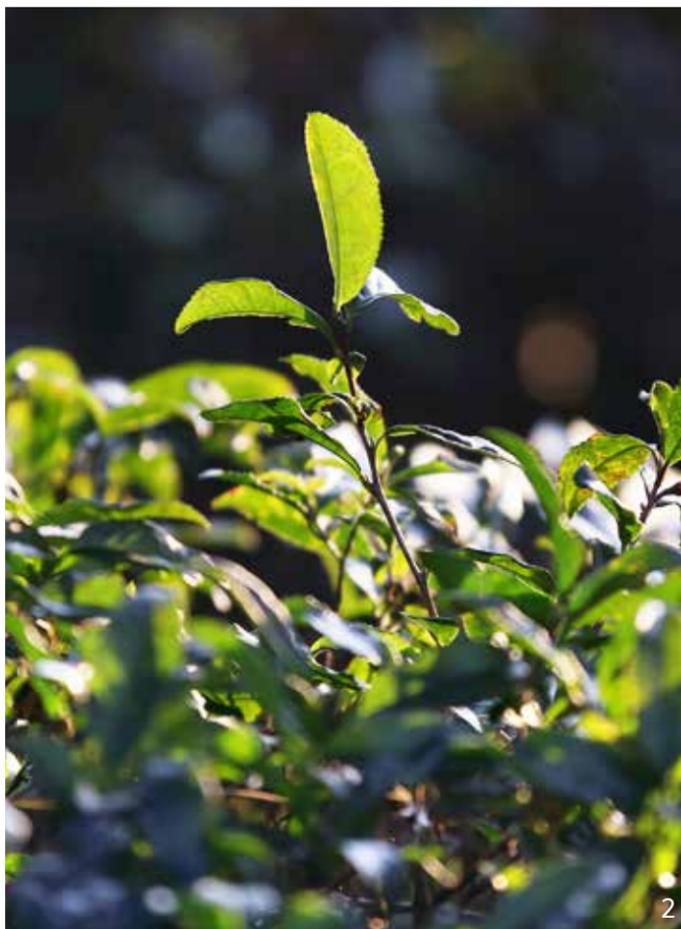
1 난로를 피운 카페
지붕 굴뚝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 질푸른 2월의 차잎
3 떡차와 묵은 녹차
4 가향 작업. 숯불을 피운
화로에 기왓장을 얹고 묵은
녹차를 데우면서 습기를
날린다.

설아다원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하지 않고 유기농 방식으로 차를 재배한다. 바닥을 내려다보니 차밭 고랑에 봄까지부터 개망초, 별꽃에 이르기까지 온갖 야생화와 풀이 지천이었다. 오씨는 “다양한 종류의 풀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땅이 건강한 땅”이라며 “무엇 하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자연의 힘만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 방식”이라고 했다.

연두색 새순이 돋는 4월 중순에는 차잎을 따는 작업이 시작된다. 4월 21일 곡우 전에 딴 어린 잎으로 만든 차를 ‘우전’, 곡우 후 7일 이내 채취한 차를 ‘곡우’, 곡우 후 8~10일 사이에 딴 차를 ‘세작’이라고 한다. 설아다원에서는 기계를 쓰지 않고 사람 손으로 차잎을 따서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가마솥에 차잎을 덫는다. 차잎을 따서 덫는 작업이 이뤄지는 4~5월에 이곳에 오면 차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방문한 시기는 새순이 돋기 전인 2월이어서 차 만들기 대신 가향 체험을 해 볼 수 있었다. 가향은 약한 숯불로 묵은 차의 습기를 날리는 작업이다. 발효시키지 않은 녹차는 보통 1년이 지나면 녹녹해지면서 맛과 향이 떨어지는데 가향을 하면 향이 살아난다고 한다.

숯불을 피운화로 위에 기왓장을 올린 뒤 묵은 녹차를 얹었다. 조금 지나니 차잎이 따뜻해졌다. 한 꼬집 입에 넣고 씹어 보니 쓰지 않고 바삭바삭하다. 입안이 개운해졌다. 가향할 때에는 차가 타지 않도록 은근한 불에 차잎이 따뜻해질 정도로만 데워 습기를 날리는 것이 포인트다. 숯불을 피우기 힘든 가정에서는 음식 냄새가 배지 않은 깨끗한 프라이팬을 약한 가스 불에 올려 가향할 수 있다. 차잎을 찜어 동그랗게 빻은 뒤 발효시킨 떡차도 숯불에 구우면 훨씬 풍미가 살아난다고 한다.

가향을 했으니 다도를 배우면서 가향한 차를 음미해 보기로 했다. 우선 다관(주전자)에 차잎을 넣지 않은 채 따뜻한 물을 넣고 잔에 나눠 따른 뒤 버린다. 첫 번째 물은 잔을 데우고 깨끗하게



2



3



4



“옥화같은 차 한잔 기울이니
겨드랑이에 바람 일어
몸 가벼워 벌써 맑은 곳에 올랐네
밝은 달은 촛불 되어 또 나의 벗이 되고
흰 구름은 자리 펴고 병풍 치는구나”

- 초의선사의 동다송 16절 -



Travel Info

- 📍 주소 전남 해남군 북일면 삼성길 153-21
- 한옥스테이 객실 요금 주중 8만원, 주말 10만원(2인 기준)
- ☎ 문의 061-533-3083

- 1 가지런히 놓인 전통다기
- 2 매화꽃을 띄운 찻잔
- 3 다원 주인장인 마슴미 씨가 다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 4 끓인 물을 속우에 먼저 따라 식힌 뒤 다관에 부어 차를 우려낸다.
- 5 화병에 꽂힌 매화나무 가지와 화로 주전자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물부터 찻잎을 우려 잔에 천천히 따르는데, 우려 차를 한 번에 찻잔 가득 채우지 않고 3분의 1씩 채우면서 잔을 번갈아 가며 따른다. 차의 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관의 찻물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따라야 재탕할 때 좋은 차 맛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

차를 채운 찻잔에 매화나무에서 따온 청매 한 송이를 띄웠다. 연노란 찻물 위로 봄빛을 머금은 매화가 새하얗게 빛난다. 잔을 입에 대니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진다. 다도를 가르쳐주던 마슴미 씨가 어느새 북을 들고 와 진도 아리랑을 개사한 녹차 아리랑을 멋들어서 곁에 뽑아낸다. 향기로운 차에 한번 취하고 흥겨운 가락에 또 한번 취했다.

◆◆◆
다원의 아침

카페 건물 옆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으면 차밭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아침을 맞을 수 있다. 아침 햇빛이 쏟아지는 차밭은 전날과는 또 다른 빛깔을 보여줬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차밭을 거닐다 바람을 피하기 위해 차 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구들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랫목 이불 속으로 발을 넣으니 방 바닥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어 따뜻하다. 전기도 연결 안 된 이 구들방은 아궁이에 장작을 때서 방을 덥히고 밤에는 촛불을 켜야 한다. 주인 부부와 친한 손님들은 게스트하우스에 방이 없으면 이곳에서 묵기도 한다고 한다.

카페로 가니 주인 부부가 진하게 탄 말차를 내온다. 곱디고운 녹차 가루에 따뜻한 물을 붓고 차선(대나무로 만든 거품 내는 술)으로 휘저어 거품 낸 말차는 우유를 넣지 않았음에도 마치 카푸치노처럼 크림이하고 부드러웠다. 말차는 차광망으로 햇빛을 가린 채 재배한 찻잎을 찢 뒤 말려 곱게 갈아 만든다고 한다. 일본에서 즐겨 먹는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예부터 차를 즐겨왔지만, 만드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한다. 차의 맛을 중요하게 여긴 우리나라는 불을 지핀 가마솥에 찻잎을 넣고 덥어 만든 '덥음차'를 즐겼다. 반면, 맛보다 빛깔을 중시한 일본에서는 찻잎을 증기에 찌서 만든다고 한다. 옥



빛이 나는 '증차'다. 넓은 땅 만큼 차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게 발전한 중국에는 찻잎을 발효 시켜 만든 발효차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우롱차다. 찻잎을 발효시키면 유통기간이 길어지고 발효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향을 낼 수 있다.

차를 사랑하는 주인 부부는 다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차를 내오며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듯하다. 전날 저녁과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주인 부부와 다원을 찾은 손님들이 난로 앞에 옹기 쪼기 모여 앉아 찻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차 이야기로 시작한 다담(茶談)은 음식 이야기, 여행 이야기, 시는 이야기로 이어지며 그칠 줄 몰랐다. ❶

1
두륜산

가련봉을 비롯해 두륜봉, 고계봉, 노승봉 등 높고 낮은 봉우리 8개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종주에 8시간, 정상까지 왕복 등반은 총 4시간이 걸린다. 정상에 오르면 완도와 진도는 물론 날씨가 맑은 날에는 제주도도 조망할 수 있다. 고계봉(638m) 입구까지는 케이블카로 연결된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며 해남의 넓은 들과 주변 산들이 이루는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케이블카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며, 왕복 요금은 성인 1만1천원, 소인 8천원이다.

☎ 061-534-8992



2
녹우당

해남 윤씨 가문의 고택으로 고산 윤선도와 선비화가 윤두서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녹우당 고택과 솟을대문, 돌담, 커다란 회화나무, 은행나무 등이 고즈넉한 풍경을 전한다. 녹우당 오른쪽에는 고산 윤선도 유물 전시관이 있다. 이곳에는 공재 윤두서 자화상, 해남 윤씨 가전고화첩 등 유물 4천619점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500원, 어린이 1천원이다.

☎ 061-530-5548



3
우항리 공룡박물관

우항리는 해안가를 따라 공룡 발자국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해안가 위쪽 언덕에는 400여 점의 공룡 화석을 전시한 국내 최대의 공룡박물관이 있다. 알로사우루스의 진품 화석과 높이 21m의 조바리아와 익룡 등 45점의 공룡 전신 화석을 전시하고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입장료는 어른 4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이다.

☎ 061-530-5949



4
대흥사

두륜산 자락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천년고찰 대흥사가 있다. 일찍이 서산대사가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 만 년 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이라 한 곳이다. 해탈문에서 바라보는 두륜산은 부처가 누워있는 와불의 형태다. 서산대사의 의발(衣鉢, 옷과 공양 그릇)과 부도, 경주의 옥석으로 조각한 천불, 암벽에 조각된 마래여래좌상 등 다양한 유물과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5
땅끝마을

해남 안에서도 최남단에 있는 송지면 갈두리는 땅끝마을로 불린다. 모노레일을 타고 갈두산 사자봉에 세워진 땅끝 전망대에 오르면 다도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몰 역시 일품이다. 땅끝마을은 일몰과 일출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른 아침 땅끝선착장에 가면 두 개의 바위섬인 맴섬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 특히 매년 2월 중순과 10월 중순에는 두 개의 섬 사이로 해가 떠올라 장관을 연출한다.

